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7월 25일(화) 총 2매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담 당 자	• 아시아팀장 정선영 ☎440-3201 • 담당자 최혜원 ☎440-3202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초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심장병 어린이 5명, 인천서 새 생명 얻고 귀국길

- 아시아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일환 … 25일, 길병원서 완치 행사 열려 -

- 관내 의료기관과 2007년부터 어린이 145명 초청해 무료 치료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어린이 5명이 ‘아시아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으로 초청받아 심장 수술을 받고 완치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25일에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완치 행사가 열렸다.

이번에 초청 치료를 받은 5명의 어린이들(6개월, 1세, 5세(2명), 7세)은 지난 5월 시 관계자와 길병원 의료진들이 몽골 현지에 방문해 사전 진료와 개인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된 어린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지난 7월 10일 입국해 퇴원할 때까지 시와 의료진의 보살핌 속에 무사히 수술을 받고 전원 완치돼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번 초청 치료 프로그램은 ‘아시아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으로, 인천시가 아시아권 교류 도시와의 동반성장과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2007년 시작한 사업이다. 선천성 심장병 등 의료환경이 열악한 아시

아권 도시에서는 치료가 힘든 질병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무료로 초청해 치료해 준다.

현재까지 145명(베트남 41, 몽골 33, 인도네시아 22, 우즈베키스탄 15 등)의 어린이들이 이 사업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으며, 국내는 물론 현지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이날 완치행사에서 인천시와 길병원은 어린이들에게 학용품 등 기념품을 전달하며 퇴원을 축하했으며, 보호자들은 인천시와 길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를 대표해 참석한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 지원 사업은 인천시의 대표 인도주의적 민관협력 사업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지역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며 “앞으로도 아시아권 도시와 다양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의료 지원 사업도 늘려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